

5월20일 월요일 

욕기 19장 욕의 대답

17장의 빌닷의 말은 다시 욕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은 욕의 소망을 나무처럼 뽑아버리셨습니다(10절). 그런데 놀랍게도 절망이 이토록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욕의 믿음은 오히려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서(욕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볼 것이라고 고백하나요? (25-26절)

20장 소발의 두 번째 설명

소발은 욕에게, 지난 역사를 보면 악인의 행복은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게 된다고 말합니다(4-11절). 이전엔 부요하고 모든 것이 평안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욕의 처지가 바로 욕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과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얼마나 오래 간다고 하나요?

21장 욕의 대답

본장은 소발의 두 번째 설명에 대한 욕의 대답입니다. 욕의 답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청안한 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으며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엘리바스는 욕의 고난은 죄의 증거임에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5절). 그러면서 욕의 구체적인 죄악들로 짐작되는 것들을 열거합니다(6~11절). 그리고 욕이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2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5월21일 화요일

23장 욕의 대답

욕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원인, 또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가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내려 놓고, 다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깊은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10절 말씀을 외워서 써 보세요.

24장 욕의 대답

23장에 이어 욕의 대답이 계속됩니다. 욕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부조리함으로 인해 오히려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허망한 용기를 내면서 더욱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변론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는 악인의 마지막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써 보세요.

25장 빌닷의 세 번째 설명

빌닷은 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통 받느냐는 24장의 욕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욕의 변론을 무가치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는 사람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26장 욕의 대답

25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무가치함과 비교할 뿐이었던 빌닷과는 다르게, 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 인간은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5월22일 수요일

27장 세 친들에 대한 욕의 말

27장-31장은 욕이 친구들과의 변론을 끝낸 후, 긴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욕은 자신의 순전함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에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세 친구들은 욕을 악인으로 묘사하며 욕이 이런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욕은 절망과 비판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혀대는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결국에는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욕이 죽기 전에 무엇을 버리지 않고, 무엇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나요? (5-6절)

28장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욕은 본장 1-12절에서 사람의 지혜를, 13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욕은 12절과 20절에서,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23절과 28절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지혜요, ()이 명철이니라."

29장 욕의 마지막 말

이제 욕기의 이야기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욕은 엘리후가 이야기에 끼어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29-31장). 욕은 고난받기 이전 자신이 누렸던 축복의 삶을 회상하며, 그것이 누구의 보호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나요? (2절)

30장 욕의 마지막 말

본장 1절, 9절, 16절에서 반복되는 '이제는'이라는 말은,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신(29장)과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으로 인해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신(30장)의 대조를 보여주는 욕의 강한 탄식입니다. 지난날 기쁨과 흥을 돋구었던 수금과 피리가 지금은 어떠한 소리로 바뀌었다고 말하나요? (31절)

5월23일 목요일

31장 욕의 대담

본장에서 욕은 친구들의 고발목록들을 반박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고를 입증해주시든지, 심판하시든지, 최종적인 심판관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욕은 자신이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자신의 무엇을 아시기를 원하였나요?

32장 엘리후의 설명

32장부터 37장까지는 네 번째 인물인 엘리후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욕과 세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4절)이어서, 지금까지 참고 듣기만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개입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6-22절). 엘리후가 욕과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욕에게:
- 2) 세 친구들에게:

33장 엘리후가 욕에게 하는 말

엘리후는 지금까지의 고난을 욕이 회개하여야 할 어떤 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이것이 세 친구가 동일하게 말했던 관점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긍정적인 목적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새삼 행하심은,
1)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2) ()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34장 엘리후가 욕에게 하는 말

본장에서 엘리후는 인간으로서 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지만(2절), 그가 접근하는 방식은 결국 엘리바스의 방식대로 욕의 경건을 무시합니다. 욕을 가리켜 '무식하게 말한다, 악인과 같다'고 한 엘리후는 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요?

5월24일 금요일

35장 엘리후의 설명

엘리후는 본장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욕의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9-14절)
엘리후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 12절: 악인이 ()으로 부르짖을 때
2) 13절: ()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36장 엘리후의 설명

엘리후는 지난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초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아보신다고 말하고(7절),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11~12).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4절)

37장 엘리후의 설명

36:22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권하는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스스로 찬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기 전체가 시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구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주제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하고."
이 말씀은 욕이 말한 28:28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엘리후는 욕과 세 친구가 매달렸던 문제 즉 '왜' 고난이 임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과거의 죄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라는 질문 즉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의 관점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원인에서 목적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과거의 죄'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곧 구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5월25일 토요일

38장-39장 여호와께서 욕에게 말씀하시다

1-2장 이후에, 무대 뒤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라고 욕을 초청하십니다. 38장에서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법칙과 목적에 맞추어 창조되었고 운행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9장에서는 온갖 짐승들의 생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지혜, 무한한 권능을 설명합니다.
본장에서 "누가 이런 일들을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누구이신가요?

(욕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거나 잊혀졌다고 생각하였기에, 지금까지 잿더미에서 부르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며 일어서야 합니다. 욕은 너무나도 존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0-41장 계속해서 말씀하는 하나님

본장에서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두 종류의 짐승을 주목하십니다. 40:15절에서 베헤못(하마처럼 생긴 짐승)을, 그리고 41:1절에서는 리워야단(악어나 용)을 언급합니다. 이 짐승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며, 또한 이 짐승들이 힘이 강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40장 1-5절에서, "트집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욕에게 대답을 요구하실 때, 욕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우리의 교만함은 언제나 믿음 대신에 하나님께 이유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42장 욕의 회개와 하나님의 Blessing

욕기의 마지막 장은 욕의 답변과 회개로 시작됩니다(1-6절). 욕은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하나이다."